

캄보디아 설교자를 위한 개혁주의 설교이론과 실제



전 화 령

캄보디아 개혁주의 신앙연구소

프로포잘

1. 책 제목: 캄보디아 설교자를 위한 개혁주의 설교이론과 실제
2. 목적: 청교도 설교와 같이 깊은 말씀의 확신을 평이한 방법으로 적용하여 현재의 청중에게 영적부흥이 일어나게하는 이론과 실재를 제시함으로 캄보디아 설교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3. 방법:
 - 1) 성경신학적 조명 - 성경적 설교이론 제시
 - 2) 역사신학적 조명 - 역사적으로 청교도설교이론(레이너스와 크레이 다너스와 클라우니 방법)의 발전
구속사적 설교이론
 - 3) 실천신학적 조명 - 경건 시간을 설교 작성으로 연결시켜라
 - 4) 현실에 맞은 적응성있는 설교 - 크마에의 독특성 (율동적, 가정적 호소, 열정적요소)
 - 5) 캄보디아 설교자의 설교의 구체적인 예와 실제

목차

1. 서론

2. 청교도 개혁주의 설교의 필요성

1) 캄보디아 교회 설교의 8 대 위기

(1) 강의 와 설교의 구분선이 불분명함

(2) 캄보디아 교회의 훈련없는 목사의 양상

(3) 캄보디아 교회 목사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

(4) 선교사들의 사역이 다양해짐으로 설교사역의 우선권을 포기하는 경향

(5) 물질을 따라가는 캄보디아 교회

(6) 소명자의 배교현상

(7) 평신도 선교사들의 바른 교회관의 결핍

(8) 캄보디아 목사들은 자립과 독립을 원함

2) 그 위기에 대한 대안은 성경적 설교의 회복이다. 그 중 하나가 청교도적 개혁주의 설교이다.

3. 청교도 개혁주의의 설교이론

해석과 적용에 충실한 윌리엄 퍼킨스의 이론

4. 성경으로 말하게 하고 생활을 적용하는 일에 충실한 방법이다. 강해와 적용이다. 로이드 존즈의 방법이다. 설교자가 깨달은 것만큼 청중에 적용할 수 있다.

5. 캄보디아 설교자들의 설교작성법

7 단계

(1) 경건시간을 설교와 연결시켜라

(2) 발견된 주제를 설교작성에 활용하라.

(3) 설교본문을 삼각구도(관찰, 해석, 적용)로 다루라

(4) 설교목표를 확증할.

(5) 설교구조를 귀납적이게하라.

(6) 설교 대지에 적절한 논증과 예화를 더하라.

(7) 설교목표를 교회의 부흥에 접목시켜라.

6. 캄보디아 목사들의 설교의 실제

- 1) 캄보디아 목사들의 설교의 목적 -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면 항상 설교와 접목시켜야한다.
- 2) 청교도 설교자의 확신과 생활 - 칼빈의 5 대 생활지침, 설교자 생활은 그의 확신에서 나온다. 바른 성경관의 필요성, 성경이 말하는 5 개 생활지침
- 3) 하나님 형상회복: 의인신에 초점을 맞춘 설교여야한다.
- 4) 결론: 청교도 설교는 영적 부흥에 초점을 맞춘다.

제 1 장

서 론

캄보디아 교육선교사로서 사역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10 여년 이란 세월이 지났다. 나의 생애에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되는 2004 년도에 50 세 나이에 중풍을 맞아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덮어 버리는 때가 있었다. 이것으로 사역이 마치는 줄 알았는데 13 년이 란 세월 동안 10 년의 미주 목회와 13 년간의 신학교사역을 활발하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은 정말 기이 하시다. 주께서 특별히 불쌍히 여겨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라”(고후 12:10)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아무 소망 없는 상태인 자가 캄보디아라는 미 지의 나라에 와서 캄보디아 교회를 섬기는 동기가 될지를 미처 몰랐다. 죽음의 문턱에서 새로운 창조적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신 분은 바로 나의 생명이신 성삼 위 하나님이었다.

1996 년도에 설교로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의 개혁신학 교와 캄보디아의 국제 신학교 에서 나누었던 나의 설교 이론과 실체가 새로 운 삶의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이 되었다. 이제는 15 년이란 세 월 동안 주께서 남다른 건강을 허락하셔서 즐기게 새로 운 도약을 하게하셨다. 고난의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주께서 주신 “너로 사슴의 발처럼 높은 것을 다니게 하리라 (합 3:19)”는 하박국 선지의 약속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 을 보며 필자는 놀라게된다.

2006 - 2012 년까지 신학대학교에서 먹고, 자고, 연구하고, 가르치다 상태가 안 좋으면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늘 준비하며 가르쳤는데,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과분한 은 혜를 부으셔서 2020 년부터는 새로운 사역으로 옮겨가게 하셨다. ITCS 학교 사역에 7 년쯤 되어 건강이 좋아져서 주말에 별도의 개인 사역을 시작한 것이 현재 15 명의 스태 트들과 7 개의 브랜치 교회와 27 개의 셀처치를 캄보디아 25 개 도 전역에 형성하고 프놈 판에 캄보디아 개혁주의 신앙연구소를 중심으로 빠일린, 뽕삽, 우드민제이, 캄뵈트, 스텡 트랭 그리고 라타나끼리에 그 브랜치 학교를 세워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따른 결과였다. 이제 그것을 발판으로 좀 더 발전적인

사역으로 나가기를 기대하던 차에 무엇보다 먼저, 캄보디아 목사와 교회들을 위하여 필자의 설교 이론과 실재를 나눌 마음이 일어나 세계적 명문 웨스트민스트신학교에서 강해설교 이론과 적용으로 학위를 받아 문혀둔 보화를 하나씩 일구어내는 기쁨으로 이 책을 집필 하게 되었다.

본인은 설교자로 부름받은 개혁주의 목사이기에 리차드 뵉스터의 고백처럼 “나는 다른 날에 결코 설교하지 않는다는 마지막 설교로 생각하고 설교했다.” 라는 고백은 못할지라도, 설교함으로 일하고 설교하다가 주께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항상 내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ITCS 에서 근 10 년 동안을 구역 과목들 (모세오경, 역사서, 대선지 서, 소선지서, 시문학서), 그리고 청교도 신학, 구속사신학, 성경신학 그리고 언약신학을 가르치던 것은 필자의 동역자인 ITCS 학장, 김현 박사의 배려가 아닐 수 없다. 부족한 종을 격려한 그의 동역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따라 서로 떨어져 다른 처지에서 사역하도록 하심을 겸허히 받아드리면서 내게 새로운 사역 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에 두려우면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25 개도에 브니엘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돌리려는 비전은 어느 해, 프춤번 때에 캄뵁툼에서 며칠을 머물며 캐쉬유가 저렴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사기 위해 프리히 뷔히어로 들어가는 길목까 지 뚝뚝이를 타고 다다른 한 마을에 들어가, 성경과 예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캄보디아에 복음 증거의 긴급성을 느끼며, 나로서는 말도 안되는 캄보디아 복음 화에 도전하게 된 것이다. 나보다 건강하고 재주있는 후배들이 와서 할 것을 기대하며 막연히 생각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네가 하라”는 양심을 통한 명령에 순종한 것이다. 25 개도의 34 개의 거점은 2019 년도 하반기에 전국을 돌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잠정 확정한 것이다. 재정이고 상황이고 모두 미지수이지만 한결음씩 순종해보면 주께서 이 루실 것을 믿고 여기 서 있는 것이다.

이런 저런 문제가 캄보디아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간과하지 못하고 이것에 대한 대답을 주고 격려하려는 것이 바로 이 설교이론과 실재라는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였다. 너무 의존적이고 돈을 사랑함에 치우쳐 본인의 소명을 타협내지 상실한 이 안타까움에서 근 본적으로 회복하는 길은 새로운 대안보다 본래의 목사로서의 성경적

소명인 설교를 회복하 는 길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설교자가 설교를 회복할 때 이런 일들이 풀려나갈 것이다

부족한 이 책이 13 년을 교단과 강단에서 교회를 섬긴 한 선교사가 사역의 갈등에 봉착 하여 그 돌파구를 찾으려는 몸부림인줄 알고 일고함으로서 주님의 지상명령에 명하셨고 (마 28:19-20, 요 21:) 사도가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복음을 설교하라(딤후 4:2)” 는 그 명령을 조명함으로서 캄보디아 교회가 부흥의 길로 나가기를 소원한다.

그 대답을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을 기초로 한 설교이론과 실제로 정리하였다. 제 1 장은 이 책을 쓰게된 동기를 서론 항목에 소개하고, 제 2 장에는 복음을 받은 지 100 년의 역사를 가진 캄보 디아 교회의 설교의 위기 상황을 지적하고, 그 위기 극복을 필자는 성경적 설교 회복이라고 대답한다. 설교가 회복되면 모든 혼란이 질서로 바뀌어지고, 공허가 풍성으로 채워지고, 흑암이 광명 바뀌어지는 결과, 곧, 성경적 윤리인 의인신의 열매가 맺히 는 길이라고 본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이 점진적으로 회복된다고 믿는다.

제 3 장에서 그 성경적 대답을 16 세기 말내지 17 세기 청교도 설 교자들의 설교이론인 윌리엄 퍼킨스의 설교학, “ 예언의 기술”에 근거를 두고 설명한다. 그 중 로이드 존즈의 설교이론인 퍼킨스의 설교 철학을 적용하려 할 것이고 웨일즈의 감리교도들을 진정한 칼빈주의 자로 보았던 로이드존즈의 발견을 설교와 접목시킴으로서 캄보디아 설교자들에게 이상적 설교의 자화상을 보여준다. 4 차 혁명을 말하고 인공지능을 논하는 시대라 하여 선교현장에도 학교 및 학사사역, 비지네스 선교, 자립선교 및 영상설교로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려는 수고는 귀한 것이지만 본질마저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여러 변질된 방향으로 나아간 것 중, 변영신학이 참다운 교회 형상을 회색시키는 점을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성경적, 사도적 설교의 회복으로 교회의 부흥을 꾀하여 95 %가 불교인으로 그 관습이 문화화 되어 버린 캄보디아 선교 현장에 설교를 통한 부흥을 꾀하는 것이 우리의 갈 길임을 강조한다.

그 대안으로 실제로 성경적 설교는 부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5 장에는 그 설교를 만드는 방법을 6 단계에 걸쳐 간략하게 다루었다. 그 구체

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실제로 목회현장에 써 먹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였다. 좀 더 자세히 알려면 필자의 설교학 교재 두권, 강해설교의 열단계 (Ten Steps for Preaching) 와 심포닉 프리칭 (Symphonic Preaching)을 참조하기를 권한다.

마지막 장에는 캄보디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설교가 95% 가 불교인이고 현재있는 교인들의 평균수준이 의존적이고 물질과 생활의 안정과 관련되기에 영적 부흥과 실제적인 경건생활 그리고 역동적인 전도에 초점을 맞추게한다. 필자는 캄보디아 한국 선교사들 과 캄보디아 목사들 의 설교를 분석하면서 그 강점과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법을 간단히 제시할것이다. 이것은 후속편으로 다른 책을 계획하고 있다.

캄보디아 교회와 목사들에게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2019 년 10 월 27 일

깜붐의 CEMF 스탭 집의 마당에서

캄보디아 교육선교사 전화령

제 2 장

청교도 개혁주의 설교의 필요성

필자가 캄보디아 설교자들을 위한 설교이론과 실제의 필요성을 느낀 까닭은 캄보디아 교회의 선교와 목회현장에서 8 가지 긴급 상황 즉, 캄보디아 교회의 설교위기, 훈련없는 캄보디아 교회의 목사양 상, 캄보디아 교회의 설교자에게 물려온 다양한도전, 선교사들의 설교 사역의 실종, 물질을 따라가는 캄보디아 설교자, 소명자들의 배교 현상, 평신도 선교사의 교회관 정립 결핍, 캄보디아 목사들은 독립하기를 원 함 등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

1. 캄보디아 교회의 설교 위기- 캄보디아 95%가 불교인이고 교회가 2 %에 불과하더라도 교회는 여전히 설교자를 세워 설교한다. 그래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여 자생적인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작은 규모의 교회라 할지라도 목사는 설교를 통하여 영혼을 다루어 야한다. 여러 악 조건이라고 적당히 다룸으로 만족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성경공부라는 명목으로 설교를 대신하려는 태도가 강조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몰라서 하는 일이다.

보통 개혁주의 노선에서도 설교와 가르침을 동일시하지만 청교도 신 앙을 따르는 로이드존즈 처럼 설교와 가르침이 구분됨을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가르침은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추지만 설교는 적용에 초점을 둔다. 본래 디다스코 헬라말은 가르친다는 뜻으로 전달 곧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한다. 설교자의 깨달음이 청중의 깨달음이 되도록 자세한 정보를 알려야한다. 그러나 케루소인 설교는 선포행위가 강조되고 선포된 메시지를 잘 받아 순종하게하여 하나님 나라를 현 장에서 경험하게 하는 뜻이다. 선교사의 설교 언어의 한계성은 어디 서나 당하는 일이고 캄보디아 설교자는 설교의 긴급성에 관한 지식의 한계로 진정한 성경적 설교의 모델을 만나기가 어렵다. 배우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 듣는대로 하기에 많은 오류를 갖는다. 사실상 설교는 어떤 방식보다도 그 자신의 가슴에 전할 말씀을 주께로 받았느냐가 관건이다.

2. 훈련없는 캄보디아 교회의 목사 양상 - 현재 목사 후보생을 찾기 어려운 추세가 된 것이 캄보디아 교회이다. 또 목사안수를 받지 않고도 설교하게 함으로써 목사안수를 경홀히 여기는 일들을 많이 만난다.

필자가 근 13년간 캄보디아 선교현장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던진 소명에 관한 질문에 목사가 되고 싶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도 막상 목사가 되기 위해 안수를 받는 과정을 포기하거나 뒤로 미루거나 혹은, 설교의 영광스러움에 설레이는 감격스러움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넉넉한 자격이 될 것 같은데도 목사되는 것을 여러 변명으로 미루는 것이 많아왔다. 그 중요 요인이 자립할 수 있는 목회 현장이 조성 안되는 주된 요인이 돈의 필요성 때문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생각이다. 돈이 없어도 이 길을 가면 주께서 도와 주신다는 확신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 거기에 한 몫한 것은 예수 믿으면 선교현장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여과없이 설교하도록 쉽게 허락하거나 학교자체의 공부 과정을 단축하여 그 목적에 이르게 하려고 속성반을 만들어 잠정적인 자격을 부여함으로서 설교의 존귀한 위치를 훼손시킨 것이다.

웨스트 민스트 신앙고백의 예배모범에는 설교는 목사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일이라는 그 기준을 여지 없이 무너뜨리고 선교 현장에 맞추는 바람에 설교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으로 평준화 시켜 버림으로서 설교 경시 혹은, 설교 평준화 현상이 일어났다. 교회는 설교로 자라나는데 이것을 상대화시킴으로서 본래 사도가 생각하는 설교의 존귀함을 상실한 것이 현실이다.

3. 캄보디아 교회 목사에 대한 다양한 도전 - 100년전에 복음을 받은 캄보디아 교회는 한국의 상황과 달리 두드러진 설교자나 목회자나 신학자를 배출하기에 너무 영적으로 열악한 곳이다. 13년 동안 있으면서 이렇다할만한 설교나 신학적 고민이나 수고를 접한 일이 별로 없는 아쉬움이 남아 있다. 필자가 섬기는 ITS의 목회자 연수원은 10여년 이상, 일년에 두차례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할 때 수백명의 목사들이 모여 교육을 받고 노회까지 구성하였으나 뚜렷한 캄보디아 교계의 영적 지도자인 목사나 장로, 설교자 혹은, 부흥사를 본 일이 없었다.

어느날 그 질문을 초창기의 한 한국 선교사에게 던졌더니 앞 서간 선교사들이 물질 공세로 선교하는 바람에 거의 대다수가 물질 공세에 길드여져서 그런 열매가 없는 것이라는 대답이다. 그러나 선교현장을 감안할 때 그 답변은 어느 정도의 일리가 있으나 보다 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 필자는 성경적 설교의 실종이라는 생각을 가진다. 설교의 자리를 다른 은사, 찬양, 구제 등이 차지하고 캄보디아 교인들의 관심을 말씀 듣는데 주목하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 버렸기 때문이다. 청교도 목사, 리처드 뵉스터나 한국 강단의 기라성같은 설교자들은 언제나 말씀의 깨달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힘든 기도생활로 인한 설교선포의 열정을 가진 것에 비해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의존적이기에 설교 사역이 빈약하다는 것이다. 뵉스터는 강단에설 때마다 나는 다시 설교하지 않고 지금이 마지막 설교라는 각오로 전했다. 그리고 그가 설교하는 강단옆에 정말 지옥불이 타오르는 것 같았다는 청중의 고백들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런 평가를 받는 캄보디아 설교자가 어디 있는가?

요사이 경제적 성장을 따라 손해 보는 것은 언제나 교회와 성경학교와 신학교인 것 같다. 다니던 학생들이 방학만되면 집에 돌아가 부모의 강요로 학교 수업을 중단하거나 본인 스스로가 재정 부담에 책임을 느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어디부터 손을 써야 좋을 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요사이 목사되겠다고 하는 자원자를 찾기가 어렵고 심지어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는 현상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얼마전 바탐방에 갔을 때 27년 이상 사역한 학교에 건물도 규모가 있는 모 학교의 학장을 만나 질문하니 학생이 3명뿐이라는 것이다. 다른 신학교는 학생이 10명 정도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이유인즉, 돈벌이를 하기 위해 떠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 뒤에 있는 풀장에 오리를 키워 그들을 도울 궁리를 하는 것도 봤다.

어떤 학생은 목사가 되기전에 일반 기술학교에 다니면서 직업을 가지고 개인 교회 설립을 꿈꾸고있다. 이것은 모두 돈바람으로 사명에 대한 사모심이 흩어진 상태로 볼 수 있다. 이런 것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필자는 교회의 목사의 설교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퓨리탄시대에 영국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오늘날 상황을 비교하면 비슷한데도

그들은 영적 자이언트로 자라 오늘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데 캄보디아 교회는 여전히 구걸하기 바쁘고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 떨어져 돈의 슬럼프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 위에 설교자인 목사는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농사나 물건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며 교회를 섬기니 설교에 초점을 맞추기에는 너무 많은 장애물이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4. 선교사들의 설교 사역의 실종 - 여기에 맞추어 선교사들의 사역이 다양해 질수 밖에 없다. 필자도 13 년간의 캄보디아 사역의 종류를 정리하니 16 개나 된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하리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한 것이 아니고 현재의 필요를 성실하게 섬기려하다보니 그리 된 것이다.

2006 년도에 본래 건강치 못한 몸으로 학교에 도착하여 시작한 사역은 목회연수원 세미나에 일년에 한차례 혹은 두차례 와서 섬긴 일이 었다. 죽을 것같던 건강이 점점 회복되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여 다른 일이 없으면 신발장의 신발 정리하는 일을 하겠다는 낮은 마음으로 섬겼다. 처음에는 내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내가 2 번이나 같이 오다, 그 후, 건강이 좋아져 혼자워서 한 두주간 강의하고 돌아가곤 했다.

그후 62 세에 은퇴하고 7 년 간을 학교에서 먹고 자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상담하는 일이나의 일과였다, 주말에는 학생들을 따라 7 개지역 목회훈련장에 가서 사역 하는 즐거움을 가졌다. 그 때 학생들을 도와주기위하여 무엇을 할 까 라는 생각에 컴퓨터 미니스트리를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중고 컴퓨터를 가져 와서 고쳐 나누어주다가 렌트해주어 그들과의 관계를 가짐으로 감사 를 가르치고, 보고를 가르치고, 책임을 가르치고 그들의 개인 영적 상태를 알아 도와주려고 했다. 지금까지 그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하여 영어 문법책, 성경책 보급 등을 하게 되었다. 여러 여건이 조성되고 건강이 반쳐주어 별도의 사역을 선포하고 지금 교회를 시작하였다.

5년간 두 플랫을 임대하여 공장지 대의 공원들 전도에 초점을 맞추어 시작하였는데 이렇다 할 만한 공략을 하지 못했다.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한달에 1500 불 가량 쉽게 나가니 선교비 감당이 어려웠다. 그후 한 플랫으로 줄이고 주중에는 학교에서 사역하고 주말에는 목회사역을 할 때 스태들이 주관해서 나가고 나는 뒤에서 자문하는 식으로 섬겼다. 이런 일이 5년 이상 되면서 본래 의도한 목적과는 달라져서 한 플랫으로 줄였다. 한달에 1000 불 정도 지출이 되니 견딜 만했다. 다시 일련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제 사역을 접고 귀국하려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일시적인 증상으로 판명이 나서 다시 시작 하여 여기에 이르렀다. 때 필자는 브랜취 교회를 구상하여 각 마을 마다 각 가정을 공략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게 되었다. 지금 34 개 셀 처치를 구성하고 2020 년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그 후 생겨진 사역이 성경공부 집필사역을 시작하며 성경 세계를 이들의 수준에 맞는 편집을 하려고 늘 컴퓨터 앞에 앉아 자판을 두들겼다. 3 개 국어로 번역하려면 바빠 움직여야 했다. 70 세 이전까지 모두 완료하려고 한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사역을 하다 보니 강단 사역에 등한히 여길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은 모든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겪는 일들이다. 그럴 때마다 설교에 불을 토하는 노력보다 사람을 돌보고 구제하고 건강 챙기고 행정을 돌보는 일에 시간을 많이 뺏기 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상실된 것은 사실이다. 항상 설교는 이들 수준에 맞추는 이유를 들어 불을 토하는 설교를 하라고 후학들에게 가르치지만 사모심과 노력이 많이 배제되었다. 그 일로 설교는 행정이나 교육 그리고 구제에 그 자리를 양도하고 본래의 권위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5. 물질을 따라가는 캄보디아 교회- 이런 설교의 후퇴는 캄보디아 사회 자체가 물질에 초점을 맞추기에 바쁘다. 그래서 선교도 돈이 있어야한다는 말이 세력을 얻어 개혁자들의 교회사역의 방법과 전혀 다른 물질주의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다. 선교는 돈으로 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선교사들의 고백 속에 나오는 것은 설교에 치명적인 도전이 되었다. 돈이 없어도 선교는 설교로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상실된 것은 우리 시대의

비극이다. 실제로 캄보디아 선교현장은 가난 한 선교사, 가난한 선교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교자금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캄보디아 사역자들이 노리는 것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라 돈을 받아내려는데 이골이 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쩔수 없는 구조 상황에 떨어져 목회자들은 선교사들의 취약점을 노려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한다. 그 방법이 거짓이 앞서고 교묘하고 심지어 악랄하다. 평생을 일구어 놓은 선교사의 사역을 돈 욕심때문에 의리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송두리채 무시하고 자기의 온갖 방법으로 독 차지하려고 날치는 날강도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한다. 이것도 설교 자가 행 하니 어떻게 양심의 언어인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불가 능하다. 모양은 취하나 실제로 전하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 적용된 진리로서의 설교를 행하는 설교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의 길에 서있는 사람이란 사도의 권면은 언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진리이다. 딤후 6: 11 절은 “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라고 명령한다..

마 13 장의 가시떨기에 심겨진 씨앗이 기운이 막혀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재리의 유혹과 안일과 염려가 설교자의 설교를 자라지 못하게 하고, 설교전달과 설교적용에 큰 장애물이 된 것이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잘 섬기는 우상숭배의 마음이 사라질 때 설교는 세력을 얻게 될것이다. 물질을 따라가는 캄보디아의 흐름 역시 맞불작전처럼 설교를 회복할 때 치료가 될것이다.

6. 소명자의 배교현상- 그리고 앞서 언급한대로 신학교까지 졸업 했는데도 목사안수를 받기를 꺼려한다. 경제의 보장도 그렇겠지만 그들 속에 목사의 설교사역의 존귀함의 열망과 발견이 없다는 것이 슬픈 일이다. 사실상 설교자는 성경연구하고 설교할 때 치유의 만족을 느끼고 천당을 경험한다. 그래서 월필드는 설교자의 강단이 천국의 보좌와 같다는 의식을 가졌다. 그러므로 소명자는 사업으로 기울어져 돈보다 설교하는 시간이 큰 부담으로 다가와 고민하다가 더 적극적인 곳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소명자의 배교가 쉬워진다. 신학교를 그만두고서도 어느 교회에 설교자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교사 역시, 문화와 언어의 제약으로 캄보디아 목사의 조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묵인하고 용납한다. 그들은 설교가 직업이고 가르치는 일이 돈벌이 장소이기 때문에 소명없이도 무난하게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7. 평신도 선교사들의 바른 교회관의 결핍 - 정식으로 파송된 선교사가 아니라 어떤 동기에서 선교지를 방문한 평신도 선교사 곧 장로, 집사, 권사, 교사는 비지네스식의 교회관을 세워나간다. 설교가 기초가 되 어야함에도 돈과 다른 물질과 자신의 어떤 달란트로 모든 것이 될줄 알고 나아간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매우 약하다.

선교사는 목사 중 목사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선교사는 반드시 목사로서 서의 부름을 받는 것을 전제 한 것이 원칙이란 뜻이다. 엡 4 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교회에 몇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곧 사도, 선지자, 복음전하는자,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주셨다고 한다. 여기 사도는 13 사도를 지칭함이고 선지자는 신약에 그 시대마다 특별히 준비하신 은사이다. 복음전하는자는 사도급에 해당되는 마태, 마가, 바나바, 실 라 그리고 스테반, 빌립같은 인물을 가리킨다. 그들의 권위는 사도 적이다. 그들은 초대교회에 정경을 완성하기 전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빠일린에 어떤 교회는 한 장로가 10 년전부터 와서 교회당도 잘 짓고 4 곳의 지교회도 잘 지었고 친히 신학을 하게하여 목사로 배출한 자 들에게 목회를 맡겼다고 한다. 자신은 교회의 장로로서 그들을 실제로 통제하고 있었다. 어느 때에 물려줄려고 하는데 그들이 목회만 전념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전히 소명문제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 자연히 강단의 설교에 전념하 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악세사리로 전락하는 것을 느낀다.

8. 캄보디아 목사들은 자립과 독립을 원함-캄보디아 목사들은 자 립하기를 원한다. 그들의 방법이 좀 어설퍼도 어떠한 목사들을 도 와야한다. 이것이 모두 설교의 우위성을 양보했기에 오는 현상들이다. 말씀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이거나 생활안정 중심이 될

때 교회는 그 성격을 상실한다. 그들에게 최고의 은사인 설교에 목숨을 내대는 사역을 하기에 너무 많은 짐이 산적되어있다.

자립선교의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 선교사의 사역이 당면하는 위험이 바로 이것이다. 생활안정을 이루려 양보하다 마침내 사명마저 상실 한다면 그것은 이미 죽음과 같다. 그 결과 설교 중심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진다.

이런 8 가지의 위기에 대한 대안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적 설교를 회복하는 일이다. 모든 일이 성경으로 돌아갈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캄보디아 교회의 일차적 문제는 여전히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그러면 어떤 설교가 캄보디아 교회에 맞는가? 라는 질문에 이르게 된다. 그 대답을 필자는 청교도적 개혁주의 설교이 라고 말한다. 다음 장은 그것의 역사적 발전과 그 이론을 생각하게 될것이다.

제 3 장

청교도 개혁주의의 설교이론

필자의 1993 년에서 1996 년의 서부 웨스트 민스터 목회학 박사 과정의 멘토이신 죠셉 파이프 박사는 윌리엄 퍼킨스의 설교의 발전 과정을 그려준 박사학위 논문에서 지적하기를 현대의 많은 설교의 대다수가 윌리엄 퍼킨스의 “예언의 기술”이라 책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퍼킨스의 설교이론은 예언의 기술이란 책에 나와있는데 그 원리는 간단하다. 강해와 적용이란 두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해석, 적용, 해석, 적용을 넘나들면서 설교를 받는 청중에게 직접 접목시키는 방법이다.

한국 교회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설교자로 알려진 로이드존즈의 설교원리가 바로 이것이다. 이 두 원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그의 책을 따라 캄보디아 교회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살피는 일이 본장에서 우리가 할 일이다.

1. 성경이란 무엇인가?

역사상 본문을 읽지 않고 설교한 설교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본문을 읽고 그것을 해석함으로써 설교가 시작된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설교작성을 시작할 때 먼저 설교 본문을 잘 선택해야한다.

그런데 그 보다 더 앞선 것은 성경에 대한 설교자의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확신에서 시작되어야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은 성경해석의 기초가 됨이 당연하다. 인간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있다는 막연한 생각에서의 출발은 여러 가지

오류를 가져온다. 그는 여전히 자연인으로서 성경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성경의 윤리를 다룰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결코 설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설교란 성경을 해석하는 작업으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성경 본문을 깨닫고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여 그대로 지키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서는 설교를 만들 수가 없다.

오늘날 캄보디아 교회의 설교 현장에 일어나는 많은 혼란은 역사적으로 항상 일어난 것이다. 성경관의 혼란이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인간의 말과 사상으로 받아들이는 자유주의적 견해도 문제이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피상적으로 취급하여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것에서 여러가지 일들이 빚어진다. 거짓 교훈은 언제나 성경에 대한 개혁자들의 주장인 성경의 명료성, 성경의 권위성 그리고 성경의 정결성의 원리를 간과함에서 나온 다. 이것은 한마디로 “내 말(성경)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주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다. (요 6:) 화란의 위대한 칼빈주의 신학자, 혈만 바빙처럼,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하늘로부터 지금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성경관이다.

필자의 스승이신 한국이 낳은 위대한 신학자요, 주석가요 설교자인 정암 박윤선 이 집필한 성경신학에 보면 “오직 계시의존사색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계시란 성경을 가리키고 의존이란 자신을 온통 던지는 믿음이고, 사색이란 인간 활동의 기본 단위인 생각을 가리킨다. 이 생각이 전인을 표현 하는 통로이고 뿌리이고 기반이기 때문에 전인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기능 곧, 마음을 가리킨다. 이 마음을 계시에 의존하는 것은 자신을 성경에 던져 말씀화하는 작업을 가리킨다. 이런 성경관은 개혁자 시대의 로마캐톨릭과 맞선 반 작용에서 나온 것으로 프로테스탄트의 성격을 결정했다. 개신교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2. 성경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 전통적으로 성경해석은 성경의 구속사적 해석을 중요시한다. 이것은 성경에 구속의 흐름이 있음을 인정한다.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을 하려면 성경 자체의 흐름이 그리스도 중심한 해석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구속사 해석 혹은, 언약 중심한 해석이라해도 좋다.

이것은 세계적인 개혁주의 신학의 본산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위시한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일관성 있게 추구하는 해석으로 그 근간은 성경신학자 게르할더스 보스의 성경신학에 둔다.

이 해석을 기초로하여 하나님 형상회복 중심의 해석을 말하는 포이트레스(Vern Poythress)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성경해석학 교수로서 이것을 좀 더 발전적인 형태로 설명하기를 좋아했다. 구속사 흐름의 중심은 그리스도이고 구약을 다룰 때 이것을 기본으로 하지 않는 율법과 상징주의 해석은 복음이 아닌 인물중심주의 혹은, 도덕주의에 떨어지게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반드시 구속사의 흐름 위에서 본문을 해석해야한다고 말한다. 그 후 그는 구속사 흐름을 기초로 삼위 일체 하나님 중심한 해석을 추구한다.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진 청교도 개혁주의자들은 성경해석을 문법적으로 해석 하나 언약 중심적 해석을 추구한다. 제이 아이 페크에 의하면 청교도의 성경 해석은 “... “ 라고 했다. 그래서 기독교적 해석으로 그 뼈대를 이루기 때문에 구속사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한 해석과 관점이 다를 뿐이지 같은 결론에 이르나 구약을 다룰 때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때 구속사적 흐름을 통한 해석의 안목을 가질 때 도움을 얻는다.

필자는 하나님의 형상회복을 중심한 성경해석을 추구한다. 이 말은 앞서 말한 두 흐름을 같이하지만 좀 더 적용적인 면을 강조하여 그 결론인 열매 곧 그리스도인의 삶, 의인신에 초점을 두었다. 모든 신학과 신앙은 그리스도의 삶, 의인신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필자의 확신이다. 각 성경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나타나는 길은

바로 성경적 생활과 윤리이기 때문이다. 행함과 믿음, 믿음과 행함인데 이것은 구속의 구체적인 열매이고 결정체로 나타나야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을 중심한 해석의 다른 표현이다.

2) 이것은 포이츠레스의 해석 질문에 몇가지 질문을 구체적으로 던지는 것이다.

“(1) 본문에 하나님의 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2) 본문에 하나님의 인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3) 본문에 하나님의 신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4) 본문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어떻게 말하는가?”라는 질문들을 던짐으로 그 대답을 본문에서 찾는 것이다. 이 원리로 우리는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균형을 잡아줄을 알게된 다. 그리스도 중심은 그의 형상 중심으로 표현되어야한다. 이것이 구속의 열 매이고 구속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부록에 있는 해석 다이어그램을 본문 해석에 이용할 수 있다.

3. 성경해석을 어떻게 적용할까?

해석과 적용은 먼저 이 시대의 청중이 접하는 상황을 이해한 후에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캄보디아 교회는 캄보디아 문화와 종교 그들의 사상을 벗어 날 수 없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여러 책과 그들의 삶을 접함으로 알려지지만 성경의 안목으로 본 캄보디아인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있는 한 죄인에 불과하다. 그들의 죄악상과 그 후에 따르는 아픔을 이해하고 말씀을 치료해야 하다. 그들에게 필요한 본문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본을 알고 기둥같이 세워야할 본문을 통해 그것을 세워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세례주는 문제로 전도자가 당면한 과제를 우리는 어떻게 다룰까?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찾아서 해석해야만 한다.

해석과 적용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설교에서 적용하기 전에 성경자체 해석에 있어서의 적용을 말한다. 그 적용은 설교자가 개인 묵상이나 경건시간을 가질 때

같이 생각할 수 있다. 그 과정에 생각을 많이하기 때문에 꺼려하나 설교자는 적용을 먼저 자기 자신과 청중에게 할 수 있다. 그러는 과정에 그는 설교의 빅아이다어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이 설교의 핵이 되고 모든 해석을 적용적이게 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캄보디아 교회는 그릇된 성경해석에 심각할 정도로 노출되어있다. 캄보디아 성경버전도 많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 단어의 한계성이 있어 난감하게 된다. 그리고 다루는 성경의 성정주의, 모형주의를 그릇 해석하여 복음아닌 것을 진리로 고집 하는 자리에 머물기 쉽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계시의 표현의 두 축인 모형주의와 상징주의를 바로 해석하는 수고가 필요하다. 이것을 보스의 견해를 기본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그 예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일어나는 불뱀과 뱀뱀을 쳐다보는 사건에서 설명이 용이하다. 여기에 뱀뱀 자체는 모형주의로 보인다.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리고 쳐다보거나 장대에 다는 행위는 상징주의이다. 이 상징주의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운다. 그 사건은 일차적으로 광야 교회의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그 사건은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분을 쳐다보는 헌신된 단순한 행동이다. 이 한 사건 속에 상징주의와 모형주의가 조화를 이루어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고 오직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선명하고 풍성하게 보여준다. 이처럼 그림계시는 우리의 깨달음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신약에서 세례받는 것으로 설명했다. (고전 10:1-2) 상징주의에 대한 해석을 요구한다. 애굽은 세상, 마귀, 육을 상징한 것이고, 홍해는 죄악의 흐름이다. 이것이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준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다. 죽고 장사되고 다시 살아나는 신령한 탄생이 이루어진 중생을 설명하는 것이다. 신약의 홍해인 죄악의 결과인 죽음을 제하시고 새생명을 얻게하신 사건은 일차적으로 교회의 세례사건이라고 해석한다. 이것은 사도가 말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것이다.

만약 이 상징주의가 문자 그대로 받아드려져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거나 기적을 기대하여 메콩강이나 톤레삽을 건너려고 뛰어들어도 보호를 받는 것으로 이용하는 근거

로 해석하면 이미 사도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이다. 사도적이지 못한 설교자는 결코 그리스도를 설교할 수 없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생각을 강요할 뿐이다.

이런데서 이단의 가르침이 나오고 무지한 성도에게 주입되어 무수한 신학사조를 이루어 결국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그리스도를 떠나게 한다.

설교자의 성경해석이 설교의 열쇠이다. 본문을 알고 자기가 느낀대로 설명하면 그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짓교훈을 강요하여 자기 바벨탑을 쌓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연구를 통하여 성경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설교 작성으로 들어가야한다.

결국, 설교자는 성경으로 말하게 하는 일에 충실한 사람이다. 왕의 길잡이이기 때문에 제 역할에 충실해야한다. 퓨리탄 설교는 강해와 적용을 넘나들며 발견한 진리를 겸손하고 확신있게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로이드 존즈의 방법이다. 설교자는 자신이 깨달은 것만큼 적용할 수 있다.

제 4 장

캄보디아 설교자의 설교작성법

이제까지 우리는 오늘날 설교의 위기를 생각했고 그 대안으로 성경해석 문제를 다루었고 이제 그 위에서 설교를 실제로 작성하는 방법을 생각한다. 이것은 필자가 1996 년 목회학 박사 과정에서 “강해설교 이론과 설교작성의 열단계 (*Ten Steps For Preaching*)”로 학위를 받은 프로젝트인 데 캄보디아에서 ITCS 를 섬기고 그리고 캄보디아 교회를 개척하면서 심포닉 프리칭(*Symphonic Reformed Preaching*)이란 제목으로 책을 쓴 일이 있다. 이것을 의존하여 여기서 6 단계로 다시 정리한다.

1. 설교작성의 6 단계

1) 제 1 단계, 경건의 시간을 설교 작성으로 연결하라.

경건시간은 한국 교회의 경우, 1970 년대 파라 처치인 CCC, 네비게이토, UBF, IVF 등의 학생 운동이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 필자는 몸소 그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 흐름을 알고있다. 교회는 단지 새벽기도와 기도원 기도운동이 열심히는 교인들에게 좋은 돌파구였다. 경건시간 끝,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만남을 실천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교회는 점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생활에 적용하는 일에 성실하려했다. 그 때 많은 모임 중 경건의 시간에 초점을 맞춘 일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교회는 이 일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였다. 그 때 두란노 서원에서 발행한 생명의 삶이나 성서 유니온에서 발행한 매일 성경을 통해 경건시간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확산시키려고 문서운동을 통하여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지금은 열심히는 신자라면 QT 혹은, 개인경건시간을 가지는 것이 기본이 되었다.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들의 인도로 경건시간을 강조하는 목회가 기본 프로그램이 되었다.

필자도 한국과 미주에서 교회를 섬길 때 칼빈주의에 입각하여 경건생활을 기본하는 목회를 35년간 실행한 일이 있다. 이것이 목회에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될 때 큰 유익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원리에 근거하여 필자는 경건시간에서 설교를 탄생하게 하라고 주장한다. 경건 시간에 본문을 정하여 관찰, 해석, 적용의 삼각구도를 사용함으로 마침내 그 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그 발견된 단어, 아이디어나 개념이 설교의 목표가 된다. 그리고 개인적 경건 생활의 묵상을 통한 생각들을 많이 기록해 두면 이것이 설교 작성의 중요한 재료가 된다.

설교의 형태가 강해든지 주제든지 언제나 설교자는 경건시간에서 설교자의 가슴을 사무치게 하는 주제로 설교의 핵을 이루게 해야한다. 그래서 철저한 경건 생활을 통해 설교가 생산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제목 설교를 할 때도 관심된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다가 성경에서 적절한 본문을 정하고 삼각구도를 걸쳐 결론에 이르게한 것이다. 이것은 설교목표를 찾는 일에 반드시 거칠 관문이다. 제이 아담스의 설교의 목적 (*Preaching with Purpose*)이란 책은 그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는 청교도 설교를 근간으로 현대 강단 설교의 약점인 적용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준다.

2) 묵상의 삼각구도에 집중하라

설교 본문이 정해진 다음, 우리는 그 본문을 정확히 알기 위해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삼각구도의 원리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세 관점은 성경을 다루는게 숙달된 방법으로 이용되어야한다.

1) 첫째, 관찰(Observation)이다. - 이것은 본문을 문법적, 구속사적으로 살피는 작업이다. 이 때 우리는 해석의 원리를 적용한다. 두가지 원리, 즉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을 전체사상으로 해석하라는 어거스틴의 원리를 따른 것을 기본으로 하여 앞서 말한 포이츠레스의 해석원리를 여기에 적용할 수 있다.

본문 내용을 정확히 알기 위하여 문장스타일, 단어, 용법, 평행구절 그리고 원어의 의미를 권위있는 번역본을 비교하여 정확한 뜻을 알아야한다. 관찰할 때 우리는 6 하 원칙에 입각한 질문을 던짐으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다. 좋은 질문은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2) 둘째, 해석이다.

관찰할 때 저절로 알려지는 것도 있지만 여러 구절을 비교할때 지각을 사용함으로 해석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의 과정을 걸치는 중 진리가 풍성해질 수 있다. 그 작업을 할 때 필자는 허브비블로스 웹사이트(*Hub Biblos Website*)를 추천한다.

거기에수 많은 역본들과 단어하나 하나마다 파싱을 해 놓았고 각 단어의 뜻을 알기 위하여 사전들을 통해 정확한 뜻을 아는데 적지않은 도움을 준다. 이런 문자적 문법적 해석은 언제 나 구속사의 흐름 속에 본문의 위치를 파악하고 거기에 제시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질문하여 그 대답을 본문의 문맥이나 전체 내용에서 찾는 작업이 필요 하다.

예를 들면 요 6:35 절을 해석해 보자. 해석다이아그램을 따라 충실한 대답을 하는 식으로 나아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다음 17 가지의 질문에 충실한 대답을 한다.

1. 그 구절의 의미와 대조되는 것은 무엇인가? - 생명의 떡의 대조는 사망의 떡 곧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인간의 탐욕이다.
2. 그 의미의 강조점은 무엇인가? - 그리스도는 생명이다.
3. 그 의미와 동일한 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 생수, 영생
4. 수사학적으로 그 내용은 어떤 성격을 가지나? - 비유이며 그것을 해석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5. 수사학적으로 그 내용의 주안점은 무엇인가? - 예수는 생명이다.

6. 그 구절의 기능은 무엇인가? - 사건이 일어난 후에 비유를 통해 예수가 생명이심을 강조하는 형식이다.
7. 그 구절은 연대기적 요소를 말하는가? -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에 자기 제자들에게 행하신 강설이다.
8. 그 구절은 상징주의 모형중의를 가지는가? - 앞선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광야의 만나 사건은 상징주의를 보이며 모형주의로는 실체이신 그리스도 보인다.
9. 그 구절의 ansar 은 무엇인가? - 앞선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신 후 주님이 그 그림 계시를 설명하신다.
10. 그 구절은 어떤 발어양식을 취하나? - 설명식'
11. 그 구절은 어떤 언어 형식으로 기록되었나? - 대화식
12. 감정적 요소는 없는가? - 없음
13. 그 구절의 본래 청중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예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여 믿게하려는 목적에서 외식과 형식의 껍질을 벗겨 참 믿음을 갖게하려고 기독교적 확신을 통해 참 구원을 가질 수 있다.
14. 그 구절의 본래 청중은 누구인가? - 유대인 그리스도인
15. 그 구절의 배경은 무엇인가? - 오병이어의 사건이후 그 자자들에게 참 의미를 가르치는 장면이다.
16. 그 구절의 구속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 구속중심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의 실체를 여러비유와 사건을 통해 설명하신다
17. 당대의 생활 배경은 무엇인가? - 메시아를 기다리는 농경사회의 빈곤한 상태이며 종교지도자들의 외식주의로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매우 피폐한 상태에 있는 때이다.

위의 해석의 수고를 통해 우리는 그 내용의 주안점을 찾아야한다. 여러 중요한 진리가 발견될 때 그 중 해석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제한시켜 그 내용을 단어, 구절 등으로 정리하요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본문에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주안점이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생명이라고 주장하신다.

3) 세째, 적용이다.

이것은 경건의 삶에서의 개인 적용보다 설교의 대상인 청중 곧 교회에 대한 적용으로 치중해야한다. 일반적으로 관찰은 해석을, 해석은 적용을 향한다. 발견된 진리 중 가장 내게 감동을 준 진리 즉,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신 말씀을 규정해야한다. 먼저 경건시간을 통해 개인에게 적용된 것을 여기서는 교회 공동체에게 적용할 수 있다. 그 때 우리는 한가지 진리에 대한 질문으로 제한시킨다. “그 진리는 우리 청중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라는 질문에 충실한 답을 하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예를 들면, 계속 위의 본문을 생각할 때 본문은 예수만이 생명임을 말하는데, 우리 교우들에게 어떤 실제적 의미를 주는가? 라는 질문에 예수가 누구인가를 다시 설명하여 그를 생각과 삶에 중심이 되게하고 그것에 의해 통제를 받게 한다. (갈 2:20)

요한복음 1:51 절의 경유, 본문의 야곱의 사닥다리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가르치는데 이것은 우리 교우들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이것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기도와 순종을 통해 교통함으로 받아 누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생활에 적용하기 위하여 기도생활에 힘씀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들어가며 나오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려야한다. (히 10:19-20)

이것은 해석을 통해 발견한 진리를 설교에 적용하는 작업이다. 한마디로 자신의 설교 작성을 위하여 적용된 진리를 준비하는 것이 준비자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진리를 설교에 실제로 접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그리스도가 그 생명이라는 주안점을 오늘이란 청중에게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에게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는 그대로 받아들여야하고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길은 연합이 이루어져야한다.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4) 설교목표를 확정하라

앞서 본문을 정하고 관찰과 해석을 걸쳐 발견한 적용된 진리는 설교의 목표를 이루게 해야 한다. 설교의 목표는 엑스지저스(Exegesis, 본문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밖으로 나오게 하는 해석 형식)를 통하여 얻은 것으로 만들어져야 하지, 에이스지저스(Eisgesis, 밖의 사상과 아이디어를 본문에 끌어와 본문을 통제하는 해석)를 통하여 만들어진 것은 본문과 상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인간의 생각으로 본문을 통제하려고 할 수 있는 것이기에 본문과 상관없는 위험한 적용이 되기 쉽다. 이것은 본문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설교목표는 주어와 동사를 가진 분명한 한 문장이어야 한다. 이것은 설교의 주제를 중심으로 이 진리가 청중의 필요에 적용되어 반응이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진리와 청중의 영적욕구와 결합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어떤 때는 가정 목표를 정하고 전체를 작성한 후 일목요연하게 수정하여 비로소 설교 목표가 정해질 수도 있다. 설교목표는 설교자가 그 시간에 이루려는 설교의 목표이기 때문에 시간을 드려 더 견고하게 해야 한다. 그것은 순식간에 정해질 수도 있고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필자의 경험으로 보면 목상과 경건시간을 통하여 발견된 진리를 내게 적용한 것을 설교목표로 정할 때가 많다.

설교목표는 본문목표와 다르고 주제와도 다를 수 있다. 청중의 필요에 접목한 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통찰력이 필요하다. 필자는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청중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3 가지 설교목표를 만들 수 있다.

- 1) 의무 명제의 목표: “ 당신은 ... 때문에 ... 해야만한다는 공식으로 나타난다.
- 2) 가능 명제의 목표: : 당신은... 함으로서 ... 를 할 수 있다.
- 3) 가치 명제의 목표 : 당신은 ... 보다... 이 더 가치있음을 알아야한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모든 설교가 바로 이 세 명제에 거의 속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목표는 청중의 사고를 복잡하게 만들게 하고 일관성을 상실한 강의 스타일의 설교가 되어버릴 수 있다. 설교와 가르침은 구분되기 때문에 설교목표는 정보전달을 포함한 청중의 요구에 만족을 주는 적용적 진리의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그 예를 들어보자.

앞선 구절을 명제로 만들 때 “당신은… 함으로서 할 수 있다”, “당신은 … 때문에 … 행해야만 한다.”, “당신은 … 보다 더 가치가 있음으로 … 을 해야만한다.

이것을 적용할 때 우리는 아래와 같이 만들 수 있다.

- 1) 당신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서 깊이 연합할 수 있다.
- 2) 당신은 그리스도가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에게 전적으로 헌신해야만한다.
- 3) 당신은 세상의 보화보다 생명이신 예수를 더 사랑해야한다.

다른 예로, 설교 본문을 요 3: 16 절로 삼을 때 아래와 같이 만들 수 있다.

- 1) 본문: 요 3:16
- 2) 설교제목:
- 3) 설교목표:

- (1) 의무명제: 당신은 1) 성부의 일방적인 사랑 2) 성자의 순종하는 사랑 3) 성령의 임재하여 영생을 주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한다.
- (2) 가능명제: 당신은 1) 성부의 사랑 2) 성자의 사랑 3) 성령의 사랑을 앎으로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다.
- (3) 가치명제: 당신은 인간의 사랑보다 1) 품으신 사랑 2) 행동하는 사랑 3) 완성하시는 사랑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가치있게 여겨야한다.
한구절의 묵상은 사실 긴 본문을 가진 설교와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긴 본문의 묵상의 주제가 어느 특정 본문으로 요약되기 때문이다. 이같이 한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세 명제를 만들 수 있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먼저 나는 명제를 정할 때 “당신(you)”이란 말을 의도적으로 시작한다. 이것은 제이 아담스(Jay Adams)의 이론을 따른 것이다. 그는 이것으로 설교형식이 되기도 하고 강의 형식이 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강의 형식이 많은 것은 설교의 목표가 예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신이란 설교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할 때 명제가 예리하게 된다.

의무명제는 청중의 요구에 따라 거룩한 부담을 줌으로서 목표에 이르게하는 명제이다. 그러므로 ... 때문에... 해야만한다는 형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러기에 “ 때문에”의 대지는 본문에서 끌어내는 것이 원칙이다.

필자는 1) 성부의 일반적인 사랑 때문에 라는 대지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에서 끌어냈다. 어떤 의논을 걸친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천적인 사랑을 보인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 성자의 순종의 사랑이다. 성자는 성부의 사랑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셨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서 순종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을 보여주셨다. 대신지신 사랑이다. 셋째는 성령의 사랑의 행동은 개인으로 믿게하시고 영생을 얻게하심으로 나타났다. 이런 개인적인 묵상과 해석의 과정을 통하여 이 원리아래 이런 명제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가능명제는 청중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목적을 만들어진다. 이것의 형식은 ... 함으로서 ...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만들어진다. 본문에 나는 이라고 했다. 여기에 3 가지 ”... 함으로서” 라는 내용을 성부의 사랑을 알고, 성자의 사랑을 알고 성령의 사랑을 앎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만들 수 있다. 물론 여기에 언급된 3 가지는 모두 본문에서 끌어 온 것임을 확인 시켜야한다. 어느때는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유추한 평행구절을 끌고와서 그 증거를 밝혀야한다. 여기 성부의 사랑은 행동있는 사랑,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 자장의 그대로 받아 순종하는 사랑 그리고 성령의 적용하시는 사랑을 이해함으로서 우라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다.

4) 설교구조를 귀납적이게 하라.

그 후 설교자는 설교구조를 만든다. 그 목표에 이르게하는 방법을 아리스토텔레스와 레이머스의 삼단 논법을 이용하여 목표 중심한 대지와 소지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은 귀납적이게 하면 된다. 연역적 구조는 인간적 해석을 하는 유혹에 쉽게 빠지지만

귀납적인 방법은 구체적인 주제들이 성경에서 나오게하는데 필요한 작업이다. 아무리 인간적 방법의 예화와 변증은 의미가 없고 도리어 진리 전달에 해가 될 뿐이다. 만약 두 대지를 형성한다면 워드 플레이를 통해 청중이 잘 이해하도록 평이한 방법으로 만들어야한다. 그 대지는 언제나 목표를 지원하고 견고하게 해야한다. 그리고 소지는 대지를 견고하게해야한다. 그래서 대지가 목표를 지원하기 때문에 대지와 소지의 강약을 조절하여 결론에서 그 목표가 청중의 가슴에 도달 하게해야한다.

한국이 낳은 신학자요 구속자이며 설교자인 정암 박운선은 “설교는 못을 잘 박는 것 같다”고 했다. 그가 총신에 재직할 당시, 교권으로 학교가 분열될 위기에 자주 강단에서 설교하여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진리를 이해케 하는데 큰 역할을 한 설교 자이다. 그 때 필자는 그의 진실된 설교에 큰 은혜를 받고 합동신학교 2년을 수학 할 때 채플때마다 그의 설교에 감동을 받은 경험이다. 그의 설교는 청중에게 큰 감동을 주고 부흥을 일으키는 불을 던졌다. 그 동인은 그가 성경을 다름이 그렇게 진실하고 분명하고 우리의 양심을 거기에 접목시키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 같다. 필자는 그의 칼빈주의 사상이 청교도의 경건으로 접목되어 교회의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넘친 말씀의 종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주로 바빙크의 성경관을 좋아하고 그 자신이 성경의 생명성을 그대로 믿었다. 그리고 성경대로의 삶을 살기위하여 노력 하였기에 그의 설교는 언제나 감동을 주었다. 그는 인간의 자아 부패성을 설교 때 마다 심각하게 다루었다. 자기를 공격하는 설교였고 기라성 같은 청교도 설교자 들의 경건을 본받으려는 의지가 두드러졌다. 필자는 청교도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거기서 박운선 설교자의 자화상을 발견할 수 있었기에 그를 청교도 개혁주의자라고 주장한다. 칼빈주의를 삶 속에 생활화한 16-17 세기의 청교도 설교자들의 모습이 그에게 보였기 때문이다.

신학교 3 학년시절 어느날, 강의를 시작하기 전 두 권의 큰 책, 폭스의 순교사 (Fox's Martyr History) 를 들고 “ 한국교회는 이 피의 역사를 배워야한다” 소리치며 누가 이 책을 번역할 사람이 있느냐고 소리칠 때, 필자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 도미할 즈음, 번역 팀을 만들어 그 책을 복사하여 미국 이민 생활에 시도한 일 이 있었다. 이런 행위는 설교자로서의 정암은 교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렇게 소원하였다는 증거이다.

대지는 설교목표와 관련을 가지는 명제이어야한다. 대지를 2-3 개 구성할 때 목표를 더 견고하게 하는 작은 명제를 만드는 일이 되어야 한다. 그 대지는 점진적, 점층적 형식으로 워드 플레이를 필요로 한다. 중요한 것은 그 대지가 본문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종전의 요 3:16 절의 대지를 형성한다면 아래와 같다. “어떻게 그 사랑을 누릴까?” 라는 부가 질문으로 시작하여 그것에 대한 대답에 충실한 대지를 형성 할 수 있다. 소지는 대지를 견고하게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그것은 주로 두가지 요소인 강해와 적용이다. 강해는 그 대지를 원하는 본문을 해석하고 증명한 후 직 접 청중에게 적용시킨다. 질문 형태로 응답하게하든지 아니면 요약해서 그들이 할 수 잇는 것을 강조하든지 할 수 있다. 목표는 청중의 설득과 이해와 반응에 있다.

이것의 예를 드는 것이 좋겠다.

요한복음 3:16 절의 본문에서 “어떻게 그 사랑을 누릴까? “라는 부가질문에서 우리 는 아래와 같이 대답하는 대지를 만들 수 있다.

1. 첫째대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선물임을 인정함으로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 1) 설명 -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당신을 사랑하셨다. 일반은총도 큰 선물지만 그 보다 그의 아들을 보내심이 최대의 선물이다.
 - 2) 적용 -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앎으로 당신은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다.
2. 둘째대지, 그 아들을 믿음으로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 1) 설명 -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결단이 믿는 것입니다. (요 1:12) 그 때 하나님과 그의 사랑을 알게되고 그 분과의 교통이 시작됩니다.(계 3:20)
 - 2) 적용 - 당신은 그 아들을 진실로 모셨습니까?

3. 셋째대지, 영생을 가짐으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설명 -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으로 살 때 그 사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 17:3)

2) 적용 - 모세처럼 아침마다 그 사랑으로 만족하십니까? (시 90:14)

결론:

1) 영상화- 요한은 독생자를 보고 알고 믿음으로서 그 사랑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요 1:14)

2) 호소-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영역에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날마다 인격적 교제를 함으로 그 놀라운 사랑을 즐기는 생활을 누립시다.

5) 설교에 적절한 논증과 예화를 더하라

그리고 그 목표를 더 견고하게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화(illustration)와 논증(argumentation)을 더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본문의 가르침을 앞서지 말아야한다. 모든 예화와 논증은 상대적이지 성경을 앞설 수는 없다. 논증, 대지, 소지를 확증할 때 우리는 논증을 통해 해결해야 할 주제를 만난다. 그 때마다 우리는 성경적 변증을 해야한다. 이것은 성경으로 그 문제를 답하는 일이다. 프레임의 말대로 우리의 변증 즉, 방어, 설명, 그리고 공격으로 이루어지는데 주로 설명형식을 취하면 좋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한 예화를 그림을 그리듯이 보여 줌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한동안 바쁜 목회생활에 필자는 두란노서원에서 발행한 생명의 삶에 나오는 예화를 복사하여 설교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하여 변형하여 사용한 일이 있다. 그 예화는 언제나 대지와 소지를 강화시킴으로 청중을 설득시키는 일에 사용되기 때문에 예리하게 적용할 때 단지 시녀로서의 역할을 하게해야하고 이것이 발견한 진리를 좌지우지하는 컨트롤 키가 되어서는 안된다.

6) 설교의 결론과 서론을 더하라.

설교의 몸통이 완성된 후 이제 설교자는 설교의 목표가 나타나야 할 결론을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청중과의 접촉점을 가지게 하는 서론을 더함으로서 설교를 완성한다. 그 때 설교자의 설교에 초점을 교회의 부흥에 의도적으로 접목시키는 작업으로 전체 설교를 적용적이게 할 때 설교의 목표가 예리해진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받은 왕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의 지체인 당신에게 선포하여 순종하게 만들어야 하는 영적부담을 가지고 선포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설교의 결론과 서론을 더함으로 설교작성이 마쳐진다. 그 때 먼저 결론을 내리는 것은 결론이 설교목표를 분명히 말해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서론은 청중과의 접촉점을 가지는 말이기 때문에 많은 지혜를 필요로 한다. 청중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그 대답을 성경 본문으로 끌어오는 작업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다른 것은 충분히 기록하지 않아도 어떤 이는 서론을 충분히 기록하여 설교에 임한다고 한다. 이처럼 설교 한편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한편의 드라마 혹은, 잘 차려진 식탁처럼 준비되어야 한다.

그 후 설교자는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사모해야 한다. 설교자는 성령으로 영감된 본문을 성령받은 자의 인도로 관찰하고 성령의 역사로 영적 부흥을 목표로 나가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특별히 구하는 일이 요구된다. 마치 갈멜산에서 담판을 벌이던 엘리야가 내가 주의 종됨과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과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지금 이시간 불이 임함으로 증명해 달라고 하던 그 간절함 곧, 부흥의 불이 설교자의 가슴에 타올라 그 불을 저들의 가슴에 지펴야 한다.

브레너이드의 일기나 헛필드의 일기를 보면 우리는 설교자의 바른 태도를 본다. 브레너이드는 언어도 모르는 홍인종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길가다가도 기도시 간이 되면 말에서 내려 숲속에 들어가 기도했다고 한다. 헛필드는 주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신 증거를 보기 전에는 강단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가 올라갈 때는 성령이 그의 말씀을 사용하여 청중의 가슴을 불태우고 있었다.

내가 아는 나의 멘토이신 강학건 목사는 설교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면 준비치 않은 말들이 그의 설교 중에 나타나 온 회중을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기이한 일을 경험한다고 말한 바가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나는 그가 설교할 때마다 나의 가슴에 불이 던져지는 것 같은 경험을 수 없이 했다. 설교는 마침내 설교자의 언어, 인격 그리고 깨달음을 사용하되 성령이 친히 일하심으로 완성된다. 그래서 성령은 설교자의 영이며 적용의 영이다.

캄보디아 교회에 이런 흥내는 내어도 실상 그런 자리를 사모하는 설교자가 얼마 될까? 어느날 다게오의 캄보디아 교회를 방문할 때 나는 목사가 두 손을 모으고 앞에 놓인 비디오 스크린에 나오는 영상을 따라 무엇인가 중얼거리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분위기와 모양은 있을지 모르나 참된 마음으로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의 설교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하는 것과는 다르다. 마치 개신교 목사가 캐톨릭 신부의 흥내를 내는 일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았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오해한 것으로 매우 위험스러움을 느꼈다. 성령의 부으심으로 행한 설교만이 그 목적에 이른다.

7) 설교발전을 위하여 자기 설교를 신실하게 평가하라.

그 후 설교자는 자기 평가를 위하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다. 설교는 소명을 받은 목사가 평생해야 할 사역이기 때문에 자신이 행한 설교를 살피고 평가하고 스스로의 발 전을 힘써야 한다. 행해진 설교는 엄중하게 체크리스트를 통해 철저히 살펴 약점과 강점을 지적하고 과감히 수정하고 교훈을 삼아야 한다. 장로나 목사 혹은, 사모를 통한 평가를 받는 일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런 교정은 설교자 자신의 경건생활을 통한 말씀묵상과 관계된다. 성경전체를 순서대로 할 수도 있고 교회의 당면한 주제를 맞추어 성경을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어느 특정 주제를 정하여 본문에서 흘러나오는 설교를 시리즈로 할 수도 있다.

필자는 어느 한 권을 선정하여 성경 66 권을 거의 다 설교한 일이 있다. 이것은 필자가 미주 크리스찬 신문사에 15 년간 격월로 가정예배 설교를 격월로 집필한 결과와 연결

시켰기 때문이다. 그 결과 어느 성경에 들어가더라도 복음의 메시지를 가져와야한다는 생각으로 임하기에 언제나 설교내용은 풍성하였다.

그 후 캄보디아 3년 사역에 필자는 구약신학, 성경신학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바람에 설교학에 다소 느슨한 감이 있어도 항상 설교를 담당할 때 설레이고 새로운 것을 전하려고 연구하고 준비했다. 캄보디아 ITCS는 영어로 설교하기 때문에 또 다른 부담을 가졌다. 처음에는 내용을 충분히 기록하여 그대로 읽어주는 식으로 전했다. 지금 그 때 모아둔 설교원고가 13년간 보물처럼 쌓여있다. 어느날 교정하여 캄보디아 설교자들을 위한 설교집을 만들 생각이다.

영어 강의와 영어 설교는 연관이 있다. 영어 강의 안을 영어설교로 바꾸어 전하기가 바쁘기 때문이다. 언제나 30분 정도하려고 늘 생각하는데 언제나 다하지 못한 아쉬움을 가진다. 내용이 확실하고 전하는 대상이 확실하고 나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려는 좋은 마음이 있는 한, 담대히 증거했다.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은 오래 했기 때문에 쉽게 이루지고 컴퓨터를 사용하니 일이 10배나 빨라지고 쉽다. 그래서 나는 한글을 영어로 표현하는 일에 도전하여 나의 모든 강의와 설교를 영어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일을 10여년 하다보니 이제 영어로 직접 표현함이 용이해졌다, 중요한 것은 항상 전문가에게 내용을 교정받아 사용한다. 그래서 영어설교도 항상 내용이 있고 전하는 목표가 뚜렷해 졌다. 나는 가르치는 것과 설교를 구분하는 이론을 다르는데 영어설교는 한계성을 느껴 타협점을 따르기를 좋아한다.

캄보디아 사역자들을 훈련할 때 당장 대학 졸업후 설교현장에 나가야하는데 나의 일은 청교도 설교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목표로 삼았다. 구속사적 설교는 성경신학의 이해가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어드반스 트래스는 그렇게 하게한다. 어느날 수백편의 설교들을 점검하는 중 그들의 문제가 언제나 목표선정이 모호하다는 점을 보았다. 교정은 쉬운 것은 아니었다. 개혁주의 설교자들이 강의 스타일의 설교를 하는 이유를 고집하는 이유가 본문 내용을 세밀하게 설명함으로 자신의 할 임무를 제한 시키기 때문이고 그것을 당신이란 청중에게 지금이라는 현장에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잘 받아 순종해야 하는 결단을 요구하는 부담과 거기에 따른 영적긴장을 피하려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래서 필자는 선교지에서 강의 형식이나 설교형식을 같이 사용하는 것도 실제로 필요한 것임을 알게되었다.

캄보디아 교회는 특히 전도 설교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 로이드 존즈는 안정된 교회에 자주 전도설교를 하여 교인 중에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복음에 응답하게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캄보디아는 더운 나라이다. 그 더위는 때로 사역에 여러 문제를 가져온다. 자기의 몸이 땀에 번들거리면서도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볼 때 대견스럽기도 하고 정말 이들이 복음을 위해 하는가라는 반문을 갖기도 한다. 이 때 가장 쉽게 전하는 방법이 여전히 청교도 전도방법인 주어진 본문에 들어가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구속사적 설교는 너무 많은 묵상 때문에 설교자가 잘못 다룰 때 큰 그림을 그리면서 자세는 것을 설명해야하기 때문에 초보자에게 모호한 가르침을 주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필자는 5년간을 보스의 성경신학에 근거를 두고 구속사적 설교를 행하였을 때 청중은 냉정하게도 설교는 좋은데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이 말에 충격을 받고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박사 과정을 시작한 일이 있었고 구속사적 설교에서 오는 갈등을 청교도 설교에서 답을 찾은 일이 있어 심포닉 설교라는 이론을 만들게 되었다. 이것은 해석과 적용 사이에 일어나는 일연의 갈등을 조화를 이룸으로 해결해야한다는 것이다. 해석없는 적용과 적용없는 해석은 모두 성경적 설교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자의 강점과 약점을 상호 보완함으로서 성경적 설교에 이르러야한다. 청교도 설교의 적용의 강점은 구속사 설교의 적용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에 안목을 더해주며, 구속사적 설교의 그리스도 중심적 구속적 해석의 강점은 청교도 설교의 해석적 내용을 더 풍성하게 해준다.

이 둘을 모두 잘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14000 개의 마을에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할 때 설교자는 항상 전도 설교에 초점을 맞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것을 영혼을 복음으로 직접 구원시키는 설교이다. 단순하다고하여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깊은 이해와 복음의 증거로 구원시키려는 노력이 나타나야한다. 대중 앞에서나 개인에게서나 설교는 뚜렷한 포맷을 사용하여 이 복음을 전해야한다.

계속되는 목회설교는 성경을 선택하여 계속 행할 수 있다. 필자는 자기 평가를 위하여 체크리스트를 이용할 것을 권한다.

7. 캄보디아 목사들의 설교 분석

1) 예 1:

(1) 본문과 제목:

(2) 나의 평가:

- a. 어느 설교자의 설교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면서 나는 놀랐다. 그가 성경에 충실하려는 노력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인간적 윤리로 쉽게 적용하기를 좋아한다. 목표가 분명히 형성되어 이루어질 때 그의 설교는 더 효과적이 될것이다.
- b. 구조:
- c. 전체의 흐름이 본문의 주제를 그려내는 곳은 여러 목상을 통하여 제작된 것처럼 보인다 항상 세가지를 끌어내어 결론을 내리고 즉시 기도로 연결시킨다. 목회적 설교이다.

2) 예 2: 한국 선교사의 설교

(1) 본문과 제목: 고전 1:18-25

(2) 나의 평가:

- a. 본문에 대한 배경 설명
- b. 십자가에 복종할 이유
- c. 하나님의 명령에 권위 상실
- d. 천사도 사탄도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심을 강조한다.
- e. 고로 전도는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다.

제 5 장

캄보디아 설교자의 설교목표

이제 우리는 캄보디아 설교자들의 설교가 이르러야 할 궁극적인 목표를 생각할 차례가 되었다.

설교자는 다음 세 곳에 설교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설교가 성경이 가리키는 목적에 구체적으로 도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개혁주의 신자의 삶의 목표인 하나님의 형상회복이 정착하고 교회를 견고케 하려는 것이다. 세 방면 곧, 교회부흥, 청교도 개혁주의 믿음과 삶,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회복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교회부흥

무엇보다 캄보디아 교회는 부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가슴이 뜨거워지는 회개와 믿음의 자리에 나가게 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메시지의 결론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캄보디아는 지금 큰 영적 전투 속에 들어있는 선교지이기 때문이다. 하나는 사회주의의 체제 속에서 크리스찬이 행할 타협없는 문화적 변혁의 과제와 다른 하나는 불교라는 거대한 영적, 사상적, 관습적 어두움이 짓누르는 상태로서 기독교를 허용하나 타협점을 찾아 움직이는데 발달되어있기 때문이고, 나아가 그들의 물질만능사상 때문에 참 복음의 가르침이 자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나 물질이나를 선택해야만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변혁의 돌파구는 오직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의 깨달음으로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 이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의 역사가 설교자를 통하여 나타날 때 되는 것이다. 필자는 코리안 어메리칸이지만 신앙의 시작은 한국교회였다. 한국교회의 분위기를 따라 교회가서 성경을 통해 은혜를 받고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서 예수를 알고 목사가 되었고 목사된 후에도 나의 평생 소원은 성경 진리를 잘 깨달아 그것을 잘 전하는 것이다. 2004 년 갑작스러운 스토로우크를 맞아 거의 죽다 살아나 하나님의 은혜로 캄보디아에서 선교사역을 섬기게 되었는데 나의 하는 주된 일은 건물을 짓고 안전하게 사역하는 것, 전국 25 개도에

셀처치를 세워 그들에게 세미나 형태로 나의 확신을 전하는 것 등은 모든 것이 이차적이고 일차적 관심은 캄보디아 교회의 부흥이다. 성령의 불이 부어져 캄보디아가 교회가 살아난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위하여 최 전방에서 일하는 사역자가 바로 교회의 목사인 설교자인데 그의 모든 설교가 의도적으로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당연하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면 항상 설교와 접목해야한다. 그리고 설교는 주의 교회를 세우는 제일의 요소이다.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인 가서 가르치고 지키게하는 일은 그 먼저가 설교를 통하여 교회를 먹이고 치라는 것이다. (요 21:21) 이것은 주님의 가르침과 사도의 거르침의 거울로 비추어 볼 때 더 분명해진다.

마태복음 28:19-20 에 우리는 4 가지 부름을 받는다. 필자는 여기 나오는 4 가지 사항을 아래에서 정리한다.

1) 전도하라

전도는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첫 출발이다. 교회는 전도로 시작되고 부흥의 불을 유지하는 마스터 열쇠이다. 필자는 부흥의 불을 마음에 경험하기 위하여 전도를 즐긴다. 내가 내 입으로 복음을 외칠 때에 많은 수고가 들어가더라도 마치고 나면 내 마음은 이상한 기쁨으로 채워진다. 복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말한 것이 영혼 깊숙히 박혀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캄보디아에에서도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늘 준비하고 외친 후 내 마음은 즐거움이 지배한다. 이것을 나는 부흥의 불이라고 부른다.

교회의 설교자가 전도의 기쁨을 잃는다면 그들은 자동적으로 슬럼프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 때 우리가 거기서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실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전도를 하는데 있다.

필자는 현재 캄보디아 교회가 큰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한다. 그 이유는 많은 목사후보생이 하나님의 말씀 연구를 그만두고 목사되는 것이 싫어한다. 목사와 교회없이 목회 현장에 부흥이 없다. 비록 큰 교회건물과 좋은 시스템이 준비되었다해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소망이 없다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해결의 길을

찾아 나서야한다. 그 해결책이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모든 민족에게 가야만한다. 가서 제자를 삼기 위해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한다. (마 28:18-20) 간단히 말하면 전도가 이 슬럼프를 개인적이고 교회적으로 벗어나게하는 대안이다.

그 때 교회는 이 부흥의 불을 회복할 수 있다. 우리가 전도하러갈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오늘날 캄보디아 교회는 이런 전도 활동이 필요하다. 그들 가슴에 이 불을 구하여야 하고 25 개도의 14000 의 빌리지를 찾아가 이 불을 지펴야한다.

성령은 전도의 영이시다. 마태복음 28:19-20 은 제자 삼는 것을 자상사명으로 요약한다. 그것은 교회의 세가지 역할인 세례, 가르침, 지키게 함으로 요약한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곧, 성령의 충만한 삶,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대로 세례는 교회를 세움이고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양육하는 활동이고 마침내 그 양육은 교회의 활동과 생활에 그의 말씀을 적용한 도덕적 생활 곧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모든 교회 곧,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명령을 신실하게 따라야한다. 이것이 사도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엡 2:20)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다.

이 네가지 중 전도는 교회의 일차적인 행동지침이다. 무엇보다 우선 교회는 모든 족속에게 가야만한다. 간다는 것은 분명한 목표를 향해 현실적으로 행동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옮기는 것을 가리킨다. 가는 행동, 전도 없이는 세례가 없고 가르침도 없고 순종도 있을 수가없다.

다시 말하면 전도없이 교회는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6:15 절은 말하기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한다. 그것은 교회의 일차적 임무가 전도임을 강조한다.

교회가 모든 민족에게 간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명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라고 했다, 여기서 주님은 전도를 강조하시기를 “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선포하셨다. 이 말은 주의 증인으로 영구적으로 못살면 성령을 받은 곳이 아니라는 말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의 일차적 표현이 전도임을 강조한다. 다시말하면 성령은 전도의 영이시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증인 곧, 전도자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다. 전도없는 크리스찬은 죽은 것이다. 전도없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사멸된 상태이다. 그러나 교회가 전도를 행동으로 옮기길 때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3) 세례를 주라

우리는 교회의 전도로 만들어진 거듭난 신자에게 세례를 주라는 명령을 듣는다. 그것은 선택한 백성을 교회로 인도함으로 교회를 새유는것을 의미한다. 세례없이 참된 신자란 없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성령세례를 받은 후에 물세례를 받아라는 것이다. 왜냐? 교회의 교제는 건강한 성장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져도 그리스도안의 순결을 지켜야한다. 이것이 교회에 일어나는 성령의 교통이다. 누가 거듭난 신자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가? 여기 마 28:19-20 에 “ 너희”란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문자적으로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직접 선택하여 먹고 자고 같이 살면서 가르치신 사도를 가리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12 사도를 먹이고 자고 함께 일하심으로 허락하여 증인이 되게하시려고 의도적으로 알고 관찰하고 믿게하셨다. 장례에 사도는 예수를 통해 사도의 권위를 받았다. 왜 그런가? 주님은 세상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머릿돌 위에 교회의 기초를 놓으셨다. 그 기초가 그의 교훈인 성경이다. 그래서 모든 교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기반 위에 확고히 서야만한다. 바울은 말하기를 “사도와 선지자의 터” (엡 2:20) 라고 했다. 여기서 사도는 13 제자이고 선지자는 마가, 누가 등과 같이 정경을 기록하는데 사용된 사람들 곧 구약의 선지자들과 관계된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자들을 가리킨다.

지금 우리 시대에 사도와 선지자란 누구인가? 그것은 오직 성경과 그의 교훈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크리스찬 곧 모든 교회는 모든 성경 (66 권) 의 가르침 위에 소 서 있어야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성경의 가르침을 떠난다면 그는 그릇된 길을 가는 자이다. 그가 무구한 희생을 치루었다해도 그는 그리스도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바벨탑처럼 인간의 탑을 세우는 이이기 때문에 이단 교훈으로 기울일 수 있다. 그리스도는 모든 신자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존중해야한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개신교회는 교회를 위하여 부름받은 안수받은 목사만이 행할 수 있다. 만일 누구든지 성경을 따르지 않으면 확실히 그리스도에 의해 책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계 22:18-19) 비록 우리가 선교현장에서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 나의 교회가 아닌 그의 교회를 세워야만 한다.(마 16:18)

2)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셋째 대 위임령은 가르침의 활동을 포함한다. 누가 교회를 가르칠 수 있는가? 오직 사도만이 교회를 가르친다. 다시 말하면 사도적 권위만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다. 오늘날의 사도는 어디있는가? 그것은 성경이다. 성경에 의존할 때 실제적 사도적 역할을 하는 권위는 목사이다. 엡 5 장은 말하기를 “교사인 목사”라고 한다. 여기에 오직 교사인 목사만을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교회에 두신 특별한 선물이다. 그래서 목사의 역할은 교회 활동에 그렇게 중요하다. 교회에 어떤 목사나 신학교의 어떤 교수가 여기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첫째로 가르치는 사역은 오직 목사에게 속한다. 그래서 바울은 목사와 교사 (그 교사가 아니라 그 목사와 교사 곧, 정관사가 두 명상에 하나 붙어있다) 라고 할때 목사의 일차적 역할이 가르치는 일임을 강조한 것이다.

오늘날 교회를 가르치는 일은 교회에 있는 목사에 의해 행해지고 검토되어야만한다. 목사의 가르치는 내용이 주님과 사도들에게서 나온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이가 그 흐름을 깨어버린다면 심각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목사의 허락이 없이 가르치는 사역은 중단되어야한다. 왜냐하면 목사와 신학교수만이 사도적

권위 라인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인 성경에 충실한에 있어서 그러하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을 가르쳐야한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와 가르침에 헌신해야한다. 본래 필자는 한 교육선교사로 나의 남은 생애를 ITCS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부름받았다. 나는 10 년동안 구약분야의 말씀을 가르쳐왔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25 개도의 캄보디아 교회를 위하여 가르침이 확장되어 설레이고 그러나 두려운 마음을 가진다. 어떤 모임이나 성경적 신학적 주제에 대한 나의 깨달음을 나눌 준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이였다.

특별히 나는 강단에 설교하기를 좋아한다. 어떤 이들은 설교하기를 피하는데 나의 경우는 다르다. 어떤이가 설교를 요청하면 나는 곧 복종한다. 내가 강해설교에 관한 주제로 1996 년에 학위를 받고 잠시동안 성경신학을 가르쳤지만 다시 설교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부름을 확인하고 설교에 집중하게 되었다.

4)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하라

네째, 우리 주님의 대위임령은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포함한다. 제자삼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마쳐진다. 교회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의인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엡 4:23-24) 5:8-9 마 23:23)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그의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은 온세상에서 대접을 받으셔야만한다. 그 권위가 사람들을 지배해야한다. 여기 지킨다는 것은 보관하고 적용하고 즐거움으로 전생활에 말씀을 복종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그의 전생활이 말씀으로 지배되어야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곧, 의, 평화 기쁨이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어야한다. (롬 14:13)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그의 계시 곧 성경이다. 교회는 이것을 설교해야하고 이것을 가르쳐야한다. 그리고 목회사역을 통해 교회의 모든 것이 성경에 의해 점검되어야만 한다. 그 때 그리스도의 약속이 임마누엘 즉, 성령충만함,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함, 하나님 나라를 즐거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새로운 에덴인

하나님 나라임을 믿는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 안에서 일하시고 그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신다. “주는 영이사다” (고후 2:17)

만일 우리가 그의 가르침에 불순종한다면 그는 복을 잃은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야한다. 캄보디아에서 셀 교회를 만든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의 지침을 따라 세워져야만한다. 이 모든 것이 설교를 통해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에 다 들어있다.

주님의 지상명령, 전도, 가르침, 순종하게 되는 것을 사도들 역시 구절을 좀더 해석하여 둘째와 셋째를 설교와 가르침으로 교회를 세우는 과정을 설명하고 목사의 주된 일이 설교라고한다.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설교하라는 것이다. 때로는 가르침과 설교를 동일시하는 곳으로 생각하지만 설교의 독특성을 인정하여 설교하라고 명한다. 이것은 왕적권위를 가디고 왕의 권위의 원천인 성령의 나타남으로 그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모든 생활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라는 것이다. 이것은 창조 때에 명하신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의 실체이다. 하나님은 땅이나 하늘이나 건물의 제약을 받으시면서 영으로 거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성품이 채워질 그릇에 임함으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의 복음화는 단지 교회당 세우는 것이나 크리스찬 모임으로 제한됨이 아니고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교회가 되어 그들의 모든 삶, 모든 피조물을 복음화하라는 것이다. (막 16:15) 이것이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순종케 함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주님이 원하시고 그의 교회가 바로 이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목표를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

2. 청교도적 개혁주의자의 확신과 생활

필자는 캄보디아에 청교도 개혁주의 신앙이 정착되는 것을 사역의 이상으로 삼고있다. 이유인즉, 오랜 세속의 물결로 사상과 생활이 이교적으로 깊이 물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 칼빈주의 삶을 적용하여 모든 방면에 하나님 중심한 비전과 삶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먼저,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은 목사 곧, 설교자들로부터 이런 사상과 삶으로 무장될 때 몰려오는 어두움을 물리치고 새로운 개혁의 사회를 만들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것을 표현한 필자의 저서 “하나님의

형상회복의 신학과 신앙”에서 그 마지막을 생활로 귀결시킨 것이 칼빈의 교리와 생활지침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착시키려면 여전히 목사의 설교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

칼빈의 5 개 교리는 그의 강요에 표현된 것은 간단하게 표현된 프랑스개혁 교회를 위한 가르침을 캄조디아 교회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 확고하게 세워진 교리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르쳐야한다. 그것은 웨스트민스토 소요리문답의 요약인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이다. 이것을 성경공부식으로도 가르치지만 설교의 목표를 이것과 관련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칼빈의 5 개 생활지침을 설교의 목표로 둘 필요가 있다. 설교자의 생활은 그의 확신에서 나온다. 이것은 원천인 바른 성경관에서 나와야한다. 성경을 요약한 5 대 생활지침은 마침내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윤리 생활로 그 열매를 기대해야한다.

캄보디아 청교도 개혁주의자들의 설교와 확신은 칼빈주의의 생활로 요약된다. 5 가지이다. 이것을 적용하여 그들로 견고한 신앙 생활을 추구하게해야한다. 설교에는 항상 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교회로 하여금 그들의 정상적인 삶을 지속적이게 해야한다.

캄보디아 교인들이 교정해야 할 세가지 일 즉, 거짓말, 미안하다는 말을 잘 안하고 보고하지 않기로 유명한 캄보디아인의 생활에 새로운 변혁은 인위적인 가르침 이전에 말씀을 통해 성령이 일하심으로 완성된다.

리처드 뉉스터 목사는 의도적으로 그의 평생 한 교회만을 섬기려고 킨더민스터에 정착하여 평생을 거기서 가르치고 설교했을 때 그가 은퇴할 때 거리 동네마다 술주정하고 소리치고 때리는 환경이 교리 공부하는 동네로 변화되었다고 전한다. 마치 에베소 교회의 바울이 거기서 3 년 6 개월 사역하면서 일어난 큰 부흥이 온 아세아가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할 정도로 변화가 일어났었다. 그의 부흥은 설교자 사도 바울의 말씀의 열정이 그 불쏘시게가 되었다. 그 부흥은 나아가 로마를 복음화하는 일에 기여했다. 한 설교자의 줄기찬 설교는 이런 부흥을 가져오기에 충분한 것이다.

캄보디아도 이런 설교가 이루어질 때 주께서는 자기 백성의 구원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3. 하나님의 형상회복

설교자의 삶과 설교의 초점을 개혁주의적이게하는 것은 그 설교가 복음에 입각한 생활 윤리로 반드시 나타나야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성경적 윤리의 변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이 일하시는 열매로서 의인신이 나타나야한다. 필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정의한다. 이것은 설교의 초점이 항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의인신이 개인의 삶이 나타나야함을 강조한다. 설교자는 그 자신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야만 교회로 그것을 따라 살아야한다고 주장한다.

의란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는 것이다. 이것은 의의 기본을 상실한 캄보디아 교회의 길을 제시하고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다. 이 일이 회복된 교회는 견고해진다. 그리고 인이란 사랑과 자비를 말한다. 이것도 성령의 열매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 형상은 진실로 나타나야한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의인신에 초점을 맞춘 설교를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설교는 하나님의 성품의 나타남에 늘 칼날을 세워야한다. 이것이 의인신의 칼날이다. 이것은 율법의 기초로 하나님의 성품의 요약이다. 모든 설교의 결론이 여기에 초점을 맞춤으로 나가야한다. 그 때 설교자는 부흥의 불이 무엇인가를 알게된다.

결론

2019 년 하반기에 필자가 우드민째이에 있는 따목하우스에 간 일이 있었다. 캄보디아의 독재자가 폴포트이 마지막까지 숨어 활동하던 곳으로 알려진 그곳은 타이국경과 인접한 산으로 한 눈에 넓은 언동지역이 보일 정도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안내 표지판에 붙어있는 그의 기록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그가 먼저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의 생애를 통해 캄보디아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놓일텐데 그가 프랑스 유학시절,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 은밀한 가운데 자국민의 독립을 위하여 민족주의 나라를 세우기위하여 20 세이하의 젊은 이들을 밀림 속에서 훈련시켜 유사시에 그들을 통해 자기 꿈을 실현하려는 지략과 열정을 보면 한 지도자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했다. 무엇보다 지금 캄보디아에 필요한 것은 참된 설교자이다. 진정으로 복음을 아는 설교자가 나올 때 이 사회는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 영광스러운 일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 오직 성경을 아는 설교자가 이 일을 할 수있을 것이다. 은밀한 가운데 경건생활로 살아가며 교회를 섬기며 주의 지상명령을 순종할 때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캄보디아 교회에 설교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길게 그러나 요약적으로 필자의 설교에대한 확신을 정리함으로 캄보디아 교회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인 선교에 관해 캄보디아 교회의 설교자의 설교철학과 이론 그 리고 그 적용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형상회복을 위한 설교이론을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죽음의 나라, 물의 나라 인 캄보디아의 그런 필드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리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한다. 우리의 선교필드인 이 황금어장에 청교도 개혁주의 신앙을 세워 현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설교자라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설교학 교재가 되기를 바란다.

딤후 6:11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딤후 4: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부록 1: 설교개요

본문	제목	날자	설교자	
서론				
1. 관심				
2. 필요성				
3. 관련문장				
4. 본문목표				
5. 설교목표				
구조				
1. 대지 1				
1) 설명				
2) 적용				
3) 논증				
4) 예화				
5) 부가문				
6) 연결문장				
7) 대지1에서 대지 2로 연결하는 문장				
2. 대지 2				
1) 설명				
2) 적용				
3) 논증				
4) 예화				
5) 부가문				
6) 연결문장				
7) 대지2에서 대지 3로 연결하는 문장				
3. 대지 3				
1) 설명				
2) 적용				
3) 논증				
4) 예화				
5) 부가문				
6) 연결문장				
7) 대지3에서 대지 결론으로 연결하는 문장				
결론				
1) 영상화				
2) 요약				
3) 활동요구				
4) 호소				

부록 2: 설교자 자신의 점검표

질문	주제	평가	설명
A 강해자 (딤편 6:11)			
1.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가?	의	(1 2 3 4 5)	
2.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있는가?	경건	(1 2 3 4 5)	
3. 나는 현실의 문제를 이길 미움을 가지는가?	믿음	(1 2 3 4 5)	
4. 나는 이웃을 섬길 사랑을 가졌는가?	사랑	(1 2 3 4 5)	
5. 나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는가?	겸손	(1 2 3 4 5)	
6. 나는 현재의 시련을 견디는가?	인내	(1 2 3 4 5)	
B 강해준비			
1. 나는 본문을 연구했는가?	설교본문	(1 2 3 4 5)	
2. 나는 설교목표를 발견했는가?	설교목표	(1 2 3 4 5)	
3. 나는 구조를 정리했는가?	설교구조	(1 2 3 4 5)	
4. 나는 구조를 강화했는가?	설명과 적용	(1 2 3 4 5)	
5. 나는 설교개요를 완성했는가?	설교개요	(1 2 3 4 5)	
6. 나는 결론과 서론을 더 했는가?	설교결론과 서론	(1 2 3 4 5)	
7. 나는 적용을 예리하게했는가?	적절한 적용	(1 2 3 4 5)	
C.강해전달			
1. 나는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는가?		(1 2 3 4 5)	
2. 나는 회중과 설교전체 과정을 통제하는 권위를 의식하며 집했는가?		(1 2 3 4 5)	
3. 나는 말하는 중 회중에게 나오는 어떤 것을 이끌었는가?		(1 2 3 4 5)	
4. 나는 설교에 영적 자유를 느꼈는가?		(1 2 3 4 5)	
5. 나는 설교시 영적 자유를 느꼈는가?		(1 2 3 4 5)	
6. 나는 설교에 관하여 심각성을 가졌는가?		(1 2 3 4 5)	
7. 나는 열정과 관심과 따스함을 가졌는가?		(1 2 3 4 5)	
8. 나는 설교시 긴급성을 느꼈는가?		(1 2 3 4 5)	
9. 나는 설득적이었는가?		(1 2 3 4 5)	
10. 나는 연민을 느꼈는가?		(1 2 3 4 5)	
11. 나는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었는가?		(1 2 3 4 5)	
12. 나는 설교의 능력을 가졌는가?		(1 2 3 4 5)	
D. 강해 응답			
1. 교인은 성경을 알려고 하는가?		(1 2 3 4 5)	
2.교회는 참된 교제를 가졌는가?		(1 2 3 4 5)	
3.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는가?		(1 2 3 4 5)	
4. 교회는 성령 안에서 섬기는가?		(1 2 3 4 5)	
5.교회는 이웃을 사랑하는가?		(1 2 3 4 5)	
6.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하기위해서 모이는가?		(1 2 3 4 5)	
7교회는 거룩과 화평을 구하는가?		(1 2 3 4 5)	
8. 교회는 일은 자를 구하는가?		(1 2 3 4 5)	
9. 교회는 참된 예배의 증거를 보이는가?		(1 2 3 4 5)	
10. 교회는 자기 직분에 신실한가?		(1 2 3 4 5)	

부록 3 설교평가표

I. 성경 봉독	
A. 본문을 표현있게 읽었는가?	(1 2 3 4 5)
B. 본문을 분명히 읽었는가?	(1 2 3 4 5)
II. 서론	(1 2 3 4 5)
A. 당신의 관심을 가졌는가?	(1 2 3 4 5)
B. 그의 설교목표는인 정확한가?	(1 2 3 4 5)
C. 설교의 필요성을 이해했는가?	(1 2 3 4 5)
D. 서론은 강하게 이끄는가?	(1 2 3 4 5)
III. 구조	(1 2 3 4 5)
A.주안점을 분명히 했는가? (뒤에 적어라)	(1 2 3 4 5)
B. 주안점은 본문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는가?	(1 2 3 4 5)
C. 소지는 충분히 발전적이었는가?	(1 2 3 4 5)
D. 대지를 지원하는 예화는 적절했는가? (요약하고 적어라)	(1 2 3 4 5)
E.적용은 특절했는가? (설명하라)	(1 2 3 4 5)
F.이 구조에서 새로운 것을 배웠는가?	(1 2 3 4 5)
G.그 구조는 점진적인가?	(1 2 3 4 5)
H.그 구조는 기독교론적인가?	(1 2 3 4 5)
IV. 결론	(1 2 3 4 5)
A. 설교를 요약했는가?	(1 2 3 4 5)
B. 그것은 내용의 그림을 보였는가?	(1 2 3 4 5)
C. 목표는 적용적인가?	(1 2 3 4 5)
D. 행동의 변화를 주었는가?	(1 2 3 4 5)
V. 일반 평가	(1 2 3 4 5)
A. 전달과 스타일	(1 2 3 4 5)
1.이해할수 없는 단어	(1 2 3 4 5)
2.다양한 상상력있는 언어	(1 2 3 4 5)
3.음성의 공명, 고저, 명료성	(1 2 3 4 5)
4.제슈츄어 얼굴표정	(1 2 3 4 5)
5.청중과의 아이콘택	(1 2 3 4 5)
6.강단등단에 관심을 끌다	(1 2 3 4 5)
7.설교의 길이	(1 2 3 4 5)
8.설교의 민첩성	(1 2 3 4 5)
9.설교의 일관성	(1 2 3 4 5)
B. 효과	(1 2 3 4 5)
1.설교자는 확신과 담력으로 말했다.	(1 2 3 4 5)
2.설교에 감동을 받거나 설득을 당했다.	(1 2 3 4 5)
3.성경이 가르쳐지고 적용적이다.	(1 2 3 4 5)
4.설교제목이 주제에 적절했다.	(1 2 3 4 5)

* 이 도표는 1996년도 미국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목회학 박사과정에서 사용된 점검표를 우리 주제에 맞게 변형한 것이다

부록 4 설교본문의 해석 질문

본문:	날짜:	해석자:
해석질문	대답	발견한 진리
1. 그 구절의 의미와 대조되는 것은 무엇인가?		
2. 그 의미의 강조점은 무엇인가?		
3. 그 의미와 동일한 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4. 수사학적으로 그 내용은 어떤 성격을 가지나?		
5. 수사학적으로 그 내용의 주안점은 무엇인가?		
6. 그 구절의 기능은 무엇인가?		
7. 그 구절은 연대기적 요소를 말하는가?		
8. 그 구절은 상징주의 모형주의를 가지는가		
9. 그 구절의 문맥은 무엇인가?		
10. 그 구절은 어떤 발어양식을 취하나?		
11. 그 구절은 어떤 언어 형식으로 기록되었나?		
12. 감정적 요소는 없는가?		
13. 그 구절의 본래 청중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4. 그 구절의 본래 청중은 누구인가?		
15. 그 구절의 배경은 무엇인가		
16. 그 구절의 구속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17. 당대의 생활 배경은 무엇인가?		

